

-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18. 12.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 총 평	1
II . 주요 논의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5인)	3
③ 청중토론(2인)	6
III . 토론회 결론 및 성과	8
IV .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9

-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심화되어 가는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 및 마을 활성화 방안 모색
- 민관 협치를 위한 지역 거점대학과 사회경제조직 등을 활용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18. 12. 18.(화), 1400~16:00 /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1층)
- 참석: 100명(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 주제: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

I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한 토론의 장이었으며,
 -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官이 주도하는 형태의 사업 추진이 아닌 행정, 주민, 상인 등을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 또한, 공동체 기반의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 밀착형 사회조직이 육성되어야 함에 공감하였음.
 -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가지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새재생 모델 구축을 위한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의 필요성 등이 토의되었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1 주제발표

《박병철 사회적기업 (주)아름다운마을 대표》

- 官 중심의 도시정비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된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 기반형의 도시 재생이 필요함.
 - 일회성 사업 유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과 주민의 변화 유도
 - 행정, 주민, 상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과 교감이 녹아있는 정책 실현
 - 산학 협력을 통한 젊은 층의 사회참여 유도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세대 갈등 완화
- 도시재생이 물리적 재생산업에서 공동체기반의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시됨.
 - 사회적기업, 청년 활동가, 마을기업, 주민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조직의 활성화와 연대로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 확대
 - 장기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육성
- 서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5월 市 도시재생 관련 조례 제정 후 다양한 도시재생 현장발굴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 원도심 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 쇠퇴 원인과 대처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 시청, 버스터미널 이전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장기적인 소통채널이 구축되어야 함.
 - 또한 원도심 낙후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 사례 발굴과 거버넌스 조직의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장기적인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활용 하여야 하며, 자주적인 문제발굴과 해결을 위한 주민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해야함.

② 종합토론(4인)

① 임준홍(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 도시재생은 주민주도의 장소 중심적 협력사업으로 갈등 조정 및 관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서산 원도심은 아직 일자리와 상권이 집중되어 있으며 유동인구 또한 많으나, 상권 다양성 부족에 따른 분화와 문화예술의 조화가 요구됨.
 - 도심에 주거·사무·쇼핑·문화시설을 밀집시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 콤팩트시티 모델 조성
- 서산의 특징과 시정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개인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함.
 - 미이용·저이용 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 스마트 공유사회 구축과 주민 주도의 자율적이고 지력적인 재생을 위한 지원
 - 원도심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 등 공간은 바꾸고 활동을 채우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전환이 필요함.
- 지역기업과 주민이 관과 함께 도시재생펀드와 클라우드펀딩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적 사업관리
 - 기획부터 관리까지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심활성화 정책이 도시재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임.
 - 기업의 기부로 조성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사회 기여와 공헌을 높일 수 있으며, 소속 구성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 활동과 소비의 주체인 여성과 아동을 중시한 상권 분석이 요구되며, 도시재생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지역대학·활동가·숨은인력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직의 힘과 계속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토부 사업과의 연계성이 필요함.

② 김인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

- 온라인 구매패턴의 등장과 새로운 유통구조의 성장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지역상권의 침체는 심화되고 있음.
- 서산시에서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6월 충남연구원을 통해 「서산 오픈스트리트 조성 및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를 완료하였음.
 -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용역에 착수 예정이며, 변화로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구도심 변화로에 내년 초까지 총2억5천만원의 야간(고보)조명 설치와 벽화그리기 사업이 추진되며, 간편결재사업·온누리상품권사용 청년공방/창업센터 등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임.
- 민관협치를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 원도심 상권 활성화 현안문제였던 상인회 등록기준을 적극 검토하여 변화로와 중심상가 일대 3개 상인회를 구성하여 등록을 하였음.
 - 변화로와 중앙로 상인들도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와 도단위 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참여해야 할 것임.

③ 김진식 (한서대학교 교수)

-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대학 봉사동아리 활동을 위한 과제
 - 대학에서의 봉사동아리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지원과 전공별 보유 기자재의 대회활동에 대한 허용

- 대학 내 행정조직 지원 구성과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자문을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
- 지자체 내에서의 조직구성으로 대학과 마을의 협력관계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또는 부서의 구성

○ 대학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 도시재생 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에 사업지구의 주민공동체와 지역 소재 대학교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학교조직으로 한서대학교지역콜라보센터 (HLCC)가 필요함.
- 지자체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구성으로 지역사회+행정+대학(민간조직)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함.

④ 한기홍(서산역사문화연구소장)

○ 원도심인 상업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 방법은?

(답변: 박병철 사회적기업 (주)아름다운마을 대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모인 자리임.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젊은이들이 도심 상권에 녹아날 수 있도록 대학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홍대거리가 살아난 이유가 있듯이 한서대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상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가가 중요할 것임.

○ 상업지역에서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커져야 선순환이 이루어 질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박병철 사회적기업 (주)아름다운마을 대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하겠음.

○ 쇠락해가는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온 지역민이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변화해야할 것이며, 주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임.

⑤ 가구현(서산시중앙상가변영회장)

- 지속되는 도시재생을 위해 청년창업, 공실 가게의 임대를 제시하지만, 재임대나 청년창업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건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시의 확산 발전정책이나 신도시 조성 보다는 열린 행정으로 기존 원도심 재생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함.
 - 지역 내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시청과 버스터미널 이전 이슈로 토지 투기가 조장되어 지역갈등이 깊어가고 있음.
 - 뉴딜정책/ 도시재생정책을 말하고 있으나, 시청과 버스터미널이 이전된 원도심의 희망을 잃은 원주민과 상인들의 상실감 위에 그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임.
 - 시장 활성화, 인구 증가, 인프라 조성 후에 필히 시민 의견 청취와 소통을 거쳐 이전하는 것이 합당함.
- 청년창업, 지역문화축제 대학생 참여 유도 등 변화를 추구해야지만 건물 소유주는 현실 자각 부족으로 변영했던 과거만을 생각하고 있어 아쉬움
 - 관 주도의 오랜 관습으로 한뜻을 모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주민 주도로 도시를 재생할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③ 자유토론(질의답변)

- 시장 100대 공약사업 중 '원도심 청년문화 거리 조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함.

또한, 당진목 4거리에서 광장까지 관통하는 도로를 단기간이 아닌 5~10년 장기적 계획으로 확장해야 원도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 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항상 예산이 수반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원도심 주민들은 과거와 현재까지 많은 세금 납부로 市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합당하게 혜택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질의: 청중1(나순의 지역주민)]

⇒ 정책적인 문제는 책임성이 따르며 기관 내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함.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영수 의원]

○ 그렇다면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이라도 답변을 요청함.

[질의: 청중1(나순의 지역주민)]

⇒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참석했던 교육장소에 읍장님이 인사말을 했었는데, 1호광장에서 현재 여고 앞에 있는 육교까지 몇 년 안에 8차선을 만들거라 내용이 있었음. 8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물가로도 주변 상가와 토지를 매입 하지 못했음. 프랑스처럼 공원지역을 확보하고 광장도로를 만들었다면 모를까, 많은 고민이 요구되는 문제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님.

[답변: 김영수 의원]

○ 거버넌스 체제 구축 후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관+전문가(활동가) 세 개의 축이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서산은 官 주도 형태로 나머지 축들의 기능이 약하고 불균형하다고 생각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활동가) 역할이 중요한데 지원에 의한 활동만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따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익모델을 가져야하는지 답변을 요청함.

[질의 : 청중2(서산시 문화도시사업단 김성민)]

⇒ 전문가(활동가)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비가 지속적으로 조달되어야 함.

현재 대부분의 활동들이 명예나 공부한다는 마음 또는 지역사회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수익모델을 만들고 수익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는 어려우며, 어느 하나의 사례를 성공사례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음.

다만, 안산 로컬푸드매장, 장위동 동네목수, 홍대의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카페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간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역동적인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좌장 정리 〉

정치성이 가미되지 않은 정말 관심있는 분들과 공감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싶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자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대화와 산업화로 대도시가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시골은 소멸하고 궁핍해졌었지요. 이제는 예전에 전성기를 누렸던 원도심이 나이를 먹어 국토균형발전과 신도시개발 등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부익부빈익빈의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구도심은 공동화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한 곳이 아프면 건강할 수 없듯이 생명체적인 도시도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시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가 건강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고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도시재생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1.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2.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원도심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모델 구축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관이 주도하는 형태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치적 정책결정,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지역사회에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고 고유성을 살린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해야 함.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관)
 - 충청남도(건축도시과)
 - 서산시(일자리경제)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도의회 교육위원회

참 고 자 료

1. 토론회 사진자료 1부.
2. 언론보도 현황 1부.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15건)	비고
신 문 보 도		2건	
1	금강일보	서산 도시재생 의정토론회	
2	충남일보	서산 원도심 공동화 해결방안,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인 터 넷 뉴 스		13건	
1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서산시 원도심 회복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2	충남일보	“서산 원도심 공동화 어떻게 해결할까”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3	세종방송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서산시 원도심 회복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4	충남투데이	충남도의회, 서산시 원도심 회복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5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서산 도심 공동화, 공공경영 구축으로 해결하자”	
6	아시아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서산시 원도심 회복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7	충청탐뉴스	김영수 의원, 서산시 원도심 회복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8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민관협치 위한 지역거점대학과 사회경제조직 등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	
9	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서산시 원도심 회복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0	중도일보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 의정토론회 개최	
11	금강일보	충남도의회, 서산 도시재생 의정토론회	
12	서산타임즈	김영수 충남도의원 주관, 서산 원도심 회복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3	서산인터넷뉴스	서산시 원도심 재생 방안은?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금강일보

2018년 12월 19일 (수) 정치 04면

금강일보

2018년 12월 19일 (수)
정 치 04면



서산 도시재생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18일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산2) 요청으로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의정토론회를 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일보

2018년 12월 19일 (수)
정치 02면

서산 원도심 공동화 해결방안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서산지역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도시재생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8일 서산문화회관에서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서산2)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민관 협치를 위한 지역 거점대학과 사회경제조직 등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병철 (주)아름다운마을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외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며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서산시 도시재생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김진식 한서대 교수는 대학 봉사동아리가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역량강화 과정에 미친 영향 등을 사례로 소개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방안을 소개했다.

또 임준홍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은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서산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김인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서산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정책구상과 민관협치를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솔 기자